

2025년 1월 6일(월) 정기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1월 6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부산광역시 보도자료



담당부서 : 도시인프라개발과 도시인프라팀

유 형 : 미래비전, 투자유치, 성과

사진유무 : 사진있음 ☐ 사진없음 ☒
※협약식 사진자료 추후 별송

과장	김 호 섭	051-888-5350
팀장	박성준	051-888-5353
담당자	강기수 양희택	051-888-5352 051-888-5355

부산시, 서부산권 신 해양관광 거점 '다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' 조성한다

- ◆ 1.6. 10:30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시-사하구-(주)엘튼 업무협약(MOU) 체결... 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「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」 공모사업 참여
- ◆ 다대포 일원에 약 1조 원 투자 계획... (주)엘튼, 다대소각장 부지에 글로벌 수준의 5성급 이상 관광숙박시설 건립해 (구)한진중공업 부지 일원 재개발 등 '다대뉴드림플랜사업'과 함께 서부산의 관광 동반 상승효과 극대화 예상
- ◆ 박형준 시장, “다대포 일원을 해양·해안·지역문화·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한국형 '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'로 조성해 우리시 3대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돋움시킬 것” 이라고 밝혀

□ 부산시는 오늘(6일)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「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」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하구, (주)엘튼과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
-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, 그리고 민간투자자로 박재복 (주)엘튼 대표가 참석한다.
- 이번 협약은 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한 대표 거점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광숙박시설 건립은 물론, 주변 관광 기반 시설(인프라) 조성에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, 사하구 다대포 일원을 공모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.

□ 「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」 사업은 해양관광자원을 바탕으로, 관광자원 개발·보전과 민간투자를 연계해 기존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기반 시설(인프라)과 콘텐츠를 결합한 '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'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.

- 사하구 다대포 일원은 ▲김해국제공항과 가덕도신공항 등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과 잠재수요객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, ▲남해안권 균형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으며, ▲해양·지역문화·자연생태를 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 창출이 가능한 최적지로, 이번 사업 대상으로 추진된다.

<정부 공모요건>

- (대상지) 육역(50만제곱미터(㎡) 이상) + 해역
- (사업비) 1조 원 이상(국비 1천억 원, 지방비 1천억 원, 민자 8천억 원 이상)
- (민 자) 8천억 원 중 5천억 원 이상은 관광 숙박시설, 해양레저관광을 포함한 상업시설
- (사업기간) 전체완료 10년 이상 (민자유치 2~3년 내 착공)

- 이번 공모사업은 올해 초 해양수산부 공모(약 4개월)를 통해 전국에서 2곳이 선정될 예정으로,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비지정과 본지정을 거쳐 기본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이 지원된다.
- 시는 다대포 일원 약 40만 평에 대해 민간투자 약 8천억 원, 재정투자 약 2천억 원 지원, 총 약 1조 원을 투자해 다대포 일원을 서부산의 대표적 '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'로 조성할 계획이다.
 - 기반 시설(인프라)로는 ①복합 해양레저공간(마리나) ②인공서핑시설 ③해수욕장 ④해양치유센터 등의 체험·관광시설을 조성하고, 해수욕장 편의시설, 해안선 정리, 연안환경 조성 등의 관광자원 재정비를 시행한다.
 - 이와 함께, ▲스포츠대회, 지역축제 등 행사개최 지원 ▲관광브랜드, 홍보·마케팅, 관광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, 지역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행사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.
- 한편, (주)엘튼은 지역 중견 건설사인 (주)지원건설이 이번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, 다대소각장 부지에 글로벌 수준의 5성급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.
 - 지난해(2024년) 11월 29일 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, 총 12,882.6제곱미터(㎡)(약 3천9백 평) 토지에 총사업비 약 6천억 원을 들여 연면적 125,469.9제곱미터(㎡)(약 3만 8천 평) 규모로 호텔과 콘도미니엄 398실의 호텔&리조트를 건립·운영할 예정이다.
 - 산, 바다, 강이 어우러지고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천혜의 지역 여건을 활용한 국내 대표적인 휴양형 고급 관광숙박시설로 조성된다.
- 다대소각장 부지가 개발되면 다대포 일원에 진행 중인 (구)한진중공업 부지 재개발 등 '다대뉴드림플랜사업'과 함께 서부산의 관광 동반 상승(시너지)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박형준 시장은 “다대포 일원을 해양·해안·지역문화·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한국형 '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'로 조성해 서부산 관광산업의 새로운 구도(패러다임)를 선보일 것이다”라며, “향후 다대포 지역이 해운대 등 동부산권, 북항권과 함께 우리시 3대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

참고

다대포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상(안)

